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어제 8월 15일(토)은 81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동체교회협의회 리더 수련회가 17일(월)~19일(수) 경남 산청 민들레 공동체에서 있습니다.
- 산돌교회가 14일(금)부터 전교인 수양회를 진행하며, 함께 공동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장미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시오.
- 故 김정자님(자 조장희, 자부 이재신) 장례식이 15일(토)에 있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박광희 목사 · 이근자 사모 가정 (감사)
정재훈 목사 · 장영미 사모 가정 (정아인 생일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33 호

2026년 8월 16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광복절의 정신

익숙한 국경일인 광복절(光復節)이 돌아왔습니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이날은 정확히 보면 두 날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그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련 행사나 홍보 및 교육 영상물이 주목받기도 합니다. 어떤 계기가 생기거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특정 인물이 재조명 혹은 재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연예인의 발언으로 인해, 그 가문의 기록들이 발굴되며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상의 친일 행적 등이 파묘되면서, 자랑하며 누렸던 부와 명예가 타인의 고통과 피 위에 쌓였던 것일 수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쌓은 업은 아니지만, 조상의 행적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그 혜택을 누렸기에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며 괜히 일을 사서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당대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제국은 사람에게 등급을 매기고 피지배 민족들에게 억압, 압제, 학대, 지배, 착취라는 비인간적인 요소들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열강들에 발맞추어 거대한 영토와 권력, 풍요를 소유하고자 했던 제국주의의 열망은 지배 계급 외의 다른 자들을 전부 노예로 부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일본인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신사참배’를 뜯어보면 제국의 정체는 더욱 명확합니다. 신사(神社)는 본래 일본의 여러 신들을 모시는, 즉 신토(神道)를 모시는 사당 같은 종교시설입니다. 그런데 근대 시기의 지배층이 힘을 모으고 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신토’로 재정립하였습니다. 그들은 천황을 하늘이 내린 신성불가침의 인물이라고 세우면서, 그를 중심으로 영광스러운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신사참배는 천황에 경의를 표하며 뜻을 따르고, 그분의 수족인 국가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혹 여기에 반발한다면, 같은 일본인이라 하더라도 ‘비국민’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주변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신사참배는 여러모로 기독교와 충돌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기독교인이 불복하고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력을 앞세운 강요와 더불어 ‘신토는 문화이지 종교가 아니다’라는 절충안의 제시로 한국 기독교는 순교, 박해, 인질협박, 감금, 순응 등 암흑기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보자면 광복은 이처럼 신앙적 압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한 날이란 특별한 신앙적 의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신앙생활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주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던졌던 피와 몸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사람들은 피 흘려 얻어낸 자유로 무엇을 했을까요?

이제까지 당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대한 ‘피의 복수’일까요?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1 기미독립선언서에서 나오듯이 원망의 대상은 일본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체제와 하수인들이었지, 길거리에 남겨진 모든 민간 일본인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적 복수는 얼마 나타나지도 못했습니다. 당대의 한반도의 사람들은 복수마저 체계적인 질서와 법으로 처리하기로 맡긴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향했습니다. 더는 노예로 지내지 않는 나라, 함께 존중받으며 평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평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한반도에는 아직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독립활동에 대한 신상필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현재 북쪽의 사람들은 훨씬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억압을 당하는 사람을 돕고,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일깨우는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이어진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

< 시편 126편 6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338 415 / 419

기도 :

성경 : 고린도후서 1장

제목 : 환난을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

1. 내용: 하나님께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 서로 위로받게 하셨다 (What)

<문단구분>

1~2절 사도의 축복

3~7절 하나님의 위로

8~14절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15~24절 사도바울의 해명

2. 의미: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전하다. (Why)

1) 고린도교회와 관계가 회복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하다.

2) 더 성숙한 사람이 어려운 관계에서 손해를 겪는다.

3) 오해를 풀기 위한 열쇠는 신뢰이다.

3. 적용: 관계에서 오해를 풀자. (How)

1)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는 더욱 분별하자.

2) 어떤 경우에도 진실과 사랑으로 행하자.

3) 환난을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성서일기

듣직한 믿음의 선배님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와 있다. 누구 하나 쉬운 삶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쁜 일과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는다. 당시 사람들의 수명은 지금보다 길었다고 한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인생 중 일부분만 성경에 나왔을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평생 믿고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처럼 다가온다.

어려운 크리스천의 삶을 평생토록 실천해가며 본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옆에도 있다. 바로 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다. 오랜 시간 2세대가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잘 성장할 동안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셨다. 그 시간이 짧지 않으며 공동체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던 것을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집사가 되어 이제 교회를 같이 짊어지게 된 지금, 전에 보이지 않은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 성숙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생활, 나이가 들어가며 힘이 들어도 공동체를 이어갈 사람들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주는 기둥의 모습 등 이런 어른들이 계셔서 때로는 든든하고, 힘이 난다. 하나님께서 성경시대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님들을 통해 많은 것을 얘기하신다. 멋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전하고 싶다.

미리내사랑방 이어람 집사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이사야서 61 : 1-4

23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고백의 찬송
공동기도
목회기도

히브리서 8 : 12

379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성가대 찬양
설 교

시편 126편

370

“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 정재훈 목사

설교자
산돌교회

의탁과 성김의 삶

의탁의 기도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582

288(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서병욱 임진숙 / 봉헌위원 : 전선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홍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이 민족의 빛을 되찾아주신 하나님
민족의 광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이웃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시온으로 돌아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꿈꾸는 사람들 같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일이었습
니다. 우리에게도 광복 81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을 기억하며 기뻐합니다.

네겅의 시내.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마주한 현실은 혹독했습니다. 네겅 사막처럼 메마르고 황
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다시 일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눈물의 파종. 황폐하고 거친 밭에 눈물을 흘리며 파종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며 낙심이 되어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
라고 권면합니다. 씨를 뿌리는 수고는 우리의 몫이지만, 결실을 맺
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메
마른 땅에 묵묵히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
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윤호중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어느새 여름 방학도 막바지입니다.

보고 싶은 꾸러기들의 안부를 묻고 개학 후 남은 8월의 교육계획서를 전하는 방학엽서를 각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온이, 다운이, 나음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꾸러기들과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반갑고 다행스런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방학 동안 하온이네 집에서 만나서 사이 좋게 잘 놀기도 했고 개학을 앞둔 다음 주에는 다함께 동두천으로 나들이를 갈 계획이 있다는 즐거운 소식도 전해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즐기고 있는 꾸러기들의 소식에 감사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운이 어머니의 넷째 황보나라 출산일이 9월 초로 다가왔습니다. 엄마와 아기가 건강하기를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새 생명을 맞이하기를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지난 주 1학년에 이어 이번 주에는 6학년들에게 질문해보았어요~

♥ 방학이 좋은 이유는?

김주은 : 늦잠 잘 수 있고, 빈둥거릴 수 있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 수, 있고 쉴 수 있어서

최리야 :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날 수 있다. 친구들과 많이 놀 수 있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개학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김주은 : 학교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선생님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최리야 : 학교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학교 숙제보다 방학 숙제가 더 많기 때문에

♥ 검정고시를 치룬 소감은?

김주은 : 학교 영어시험보다 안 떨렸다. 1개 틀려서 엄청나게 속상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다.

최리야 : 뿌듯했다. 학교 영어시험이 더 떨리는 것 같고, 생각보다 쉬워서 긴장이 안 됐다.

♥ 6학년 2학기를 맞이하는 마음은?

김주은 : 졸업한다는 게 안 믿기고 한 학기만 남아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한 학기를 행복하게 보내야겠다.

최리야 : 한 학기밖에 안 남아서 아쉬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짧게만 느껴지는 더운 여름방학도 막바지입니다. 그동안 멋쟁이들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놀어지게 휴식하고, 마음껏 청춘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검정고시를 치르고, 방학 숙제를 제출하고, 계획한 것들을 실천하려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간혹 전해들은 소식들로 때론 기쁨을, 때론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그런 방학 생활도 잘 마무리할 때가 다가왔으니, 혹시 미뤄둔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성취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머리로 생각한 좋은 것들을 건전하고 지혜롭게 도전하는 것. 학생이 방학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이지요. 다함께 모일 21일 금요일 예비소집일이 기다려집니다. 모두 밝은 얼굴로, 건강한 모습들로 함께 만나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조 문

며칠 전에 창원으로 문상을 다녀왔다. 내 고향 교회 사모님의 장례식이었다.

내 고향 교회는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광안리 바닷가가 있는 곳이다. 교회 입구를 들어서면 돌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을 스무 개 쯤 아래로 내려가면 곧이어 60명 남짓 앉을 수 있는 장의자가 있는 자그마한 교회 본당 건물이 있었는데 도로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래로 꺼져 있는 일종의 반 지하 교회였다. 그리고 교회 본당 창문과 바깥 담벼락 사이에 기차처럼 일자 구조인 목사님 사택이 바로 붙어 있었고 목사님 서재 겸 안방, 그리고 작은 부엌이 붙어있는 가운데 방 두 개, 사택 갓방이라고 불렀던 우리들의 사랑방이 틈마루로 연결되어 있었다. 방이 네 개라고 하지만 다닥다닥 붙어있는 참 작은 방들이었다. 목사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고 다섯 딸을 키우셨으니 지금 생각하면 그 많은 식구들이 다 어디에서 지냈는지 모르겠다.

목사님의 넷째 딸인 내 친구는 물론이고 다섯 자매 모두 나와 남편 그리고 그 때 청년들과 함께 살고 함께 성장하며 켜켜이 쌓은 추억과 서사를 말로 다 할 수 없다.

사모님의 부고를 받고 남편과 나는 둘 다 제일 먼저 사모님이 지어주신 밥을 추억했다. 평일에도 자주 들락날락하며 목사님 가족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은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동그란 밥상에는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된장찌개 독배기가 거의 항상 있었다.

장례식장에 가서 동기들을 만났는데 “너도 사모님 밥 먹었지?”하며 서로 그 밥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우리는 철도 없이 주는 대로 그 밥을 많이 얻어먹었고 그 좁은 사택 갓방에서 오글오글 모여 주로 둘째 언니가 타주는 커피를 수도 없이 마셨다. 우리는 그 밥과 커피를 먹으며 하나님나라를 꿈꾸고 성장했고 이제 누군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인간이 되었다.

그 때랑 별반 다를 것 없는 무덤덤한 표정을 하고 국화꽃 사이 사진 속에 계신 사모님을 바라보며 인사를 드렸다.

‘사모님, 밥 감사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전향옥 집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335장, 312장

성 경 : 신명기 13장 1절~4절

말 씀 : 오로지 주 하나님만을 따르자

증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난민들을 위해>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에도 수많은 난민들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한 때 많은 피난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개선되고, 더 이상의 난민이 없길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산돌교회를 위해>

산돌교회 성도들이 사랑방공동체에서 수양회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경험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휴가철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2) 상을 치른 지체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산돌교회 전교인 수양회를 우리 공동체에서 하게 되어 손님맞이 준비를 했습니다.

공동체 마당 제초작업부터 주방 청소 그리고 무엇보다 숙소로 사용하실 모든 공간을 깨끗이 청소하여 마련했습니다.

특히, 교육관 외관 일부 페인트칠도 새로 하면서 교육관이 훨씬 환해졌습니다.

휴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신 우리 지체들의 섬김 덕분에 손님들이 평안히 머무르실 수 있었습니다.

<장영미 전도사>